

위기의 시대와 헤세의 작가 의식

김 석 도

(국어독문학과 교수)

1

헤르만 헤세도 그의 동시대의 대다수 작가들처럼 그의 생애 중 두 번 전쟁을 겪었다. 그것도 두 번 다 독일이 아닌 스위스에서였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아직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미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후였다. 그래서 교전 당사국이 아닌 중립국에 있던 그는 얼마든지 전쟁을 피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맞서 싸웠다. 그것은 시대의 위기를 좌시할 수 없는 그의 작가적 양심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 맞서 싸웠다고 해서 그것이 적극적인 지하 저항운동이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항의 시위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헤세 자신의 개인적인 활동에 의해서였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였다. 그러니까 그는 펜 한자루에 의지해 전쟁이라는 세기의 대폭력에 맞선 셈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치열하고도 치절한 대결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의 항전 의지나 태도가 결연하고 완강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는 천성적으로 反戰主義者였기 때문에 개전 초에 일부 독일 작가들이 보여준 것처럼 전쟁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찬미하는 따위의 행동은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전쟁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굳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몸은 독일을 떠나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는 아직 독일 국민이었고, 그 전쟁은 그의 조국이 일으킨 이른바 聖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전쟁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바깥에서, 청명한 하늘에서 느닷없이 내습한 듯한 불행”¹⁾이었기 때문에 그는 미처 그 전쟁에 대해 그의 생각이나 입장을 정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1차 세계대전은 그가 독일에서 스위스의 베른으로 옮긴지 2년째 되던 해에 발발했다. 그는 개전 소식을 듣고 곧 베른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출두하여 지원병을 신청했다. 그것이 독일 국민으로서의 그의 의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현역병으로서가 아니라 非軍事的인 면에서 그의 조국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아직 독일 국적을 가지고있었기 때문에 영사관측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독일 대사관측에서는 헤세와 스위스 유력 인사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²⁾ 그에게 非軍事的인 일, 즉 베른

1) Kurzgefaßter Lebenslauf. GW. 6. S. 398.

2) Vgl. Hugo Ball: Hermann Hesse. Sein Leben und sein Werk. S. 134.

독일 포로 보호기관 Deutsche Gefangenenfürsorge Bern에서의 포로文庫의 관리업무를 맡았다. 헤세는 부족한 예산과 인력 때문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의 가정생활까지 거의 포기하면서까지 포로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포로文庫 관리에 그의 전력을 다했다. 그는 “모든 생명은 그 자신의 별 아래 서 있다. 그런데 나의 별은 영웅적, 애국적, 戰士的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런 별을 받들며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³⁾고 애써 자위하며 쇠도해 오는 포로들의 독서희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포로문고를 간행하고 포로들을 위한 신문들을⁴⁾ 발행하여 스위스 국내는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러시아 등지에 억류되어 있는 독일 포로들에게 공급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서서히 전쟁의 중압이 가해졌다. 그는 전쟁에 의해 자신의 자유와 독립이 파괴되어 그의 모든 사고와 일의 기초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고 동시에 사회에 커다란 도덕적 위기가 초래된 사실을 감지했다. 독일 국내에서는 광적인 국수주의가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있었고 그것을 국외에서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참담했다. 더구나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지식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열기에 편승하여 ‘위대한 시대’가 도래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글들을 연일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는 전쟁에 대한 자신의 대처가 너무 안이했으며 그때까지 평온무사하다고 믿어 왔던 그의 생활이 결국 불안정한 지반 위에 서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국민들에게 증오심과 살육의 충동을 부추키는 발언을 서슴치않던 독일의 지식인들, 이를테면 학자, 교사, 시인, 예술가들을 향해 「아 벗들이여, 이런 가락이 아니다」⁵⁾라는 글을 쥐릿히 新報 Neue Züricher Zeitung에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1813년 독불전쟁때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키 위한 애국시를 써달라는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 괴테의 용감한 태도를 찬양하면서, 괴테는 독일 국민들로부터 “저 부드러우면서도 차거운 國際性으로써 독일 정신을 감염시켜”⁶⁾ 독일인들의 의식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괴테야말

3)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S.73 (재인용).

“Jedes Leben steht unter seinen eigenen Sternen, und die meinen waren nicht von der heldnischen, patriotischen und soldatischen Art, nicht diese Sterne zu verehren und für sie zu kämpfen war mir als Aufgabe zugefallen, sondern umgekehrt.”

4) 헤세는 이때 Sonntagsbote für deutsche Kriegsgefangene를 3년간 격주간으로, Deutsche Interniertenzeitung을 1년 반 동안 발행했다.

5) 이 글은 1914년 11월 3일에 발표했고 「아 벗들이여, 이런 가락이 아니다」라는 제목은 베토벤 제9교향악 중의 4악장에서 환희의 테마가 나타난 뒤 바리톤 독창으로 앞의 1, 2, 3악장에서 사용된 선율을 부정하고 더욱 유쾌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락으로 노래하자는 내용의 가사에서 따온 것이다. “O,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ßt uns angenehmere anstimmen, und freudenvöllere, Freude, Freude...” Aus: Symphonis Nos. 8 und 9. Ludwig van Beethoven. Dover Publication. Inc. USA. p. 176.

로 “초국가적인 인류 이념의 존재”⁷⁾를 확신하며 독일을 위한 편협한 애국자가 되기보다 “사랑, 정신적 자유, 지적 양심이라는 국제 세계의 시민이며 애국자”⁸⁾이기를 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괴테를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독일의 시인, 사상가들을 길러낸 정신도 바로 이런 정신이며 그 정신에는 “정의, 절제, 예의범절, 인간애”⁹⁾도 내재해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괴테의 후예들인 독일의 지성인들이 어떻게 그 정신에 反하는 행동을 할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헤세는 이 글에서 동물적 충동을 정신적 충동으로 醇化하는 길은 인간만이 지닌 자기 과오에 대한 수치심이나 반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과감한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정신적인 사람들’에 대한 상당히 온건한 논조의 간곡한 호소문이었다. 그러나 이 글은 헤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독일의 신문, 잡지들은 다투어 그를 “배반자 Verräter”¹⁰⁾, “지조가없는 인간 Gesinnungslump”¹¹⁾이라고 매도하며 그의 원고를 보이콧했고, 독일에 있는 그의 親知들마저 그를 “타락자 Entarter”¹²⁾라고 낙인찍어 절교를 선언했으며 그의 집에는 그를 비난하는 수많은 편지나 투서가 답지해 왔다. 그는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져 投筆緘口하지않을 수 없는 절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헤세는 후에 이 때의 자신의 절망적인 심경을 “다시 나는 모든 것에 실패했고, 다시 나는 고독해졌고 비참해졌다. 내가 말하고 생각한 것이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적대적으로 오해되었다. 다시 나는 나에게 바람직스럽고 이성적이며 좋게 여겨졌던 것과 현실 사이에는 절망적인 심연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¹³⁾라고 실토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헤세는 비로소 외부로 향하던 그의 눈을 자신의 내부로 돌려 냉정히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바깥 세계의 광기와 혼돈이 자신의 내부에는 없음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만약 그의 내부에도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부터 먼저 정리하여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외부세계의 사악함이나 야만성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그는 단정했다. 이때부터 그의 생애와 문학에서 중요한

6) O Freunde, nicht diese Töne! GS. Bd. 7. S. 48.

7) Ebd.

8) Ebd.

9) Ebd.

10) Kurzgefaßter Lebenslauf. GW. 6. S. 398.

11) Hugo Ball: Hermann Hesse. Sein Leben und sein Werk. S. 134.

12) Kurzgefaßter Lebenslauf. GW. 6. S. 398.

13) Ebd. “Wieder mißglückte mir alles, wieder war ich allein und elend, wieder wurde alles, was ich sagte und dachte, von dem andern feindlich mißverstanden. Wieder sah ich zwischen Wirklichkeit und dem, was mir wünschenswert, vernünftig und gut schien, einen hoffnungslosen Abgrund liegen.”

의미를 가지는 “제2의 큰 변화 *die zweite große Verwandlung*”¹⁴⁾, 다시 말하면 그의 內省化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때의 충격은 그의 문학이 이른바 ‘내면으로의 길 *Weg nach innen*’로 방향전환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있던 그에게 구원의 낭보가 전해진 것은 그가 쥐릿히新報에 문제의 글을 발표한지 3개월여 후인 1915년 2월이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로망 롤랑의 편지였다. 롤랑은 신문에서 헤세의 글을 읽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그의 괴테적인 태도에 감동되어 “나는 마음속으로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특히 당신이 증오의 먹구름을 거두어 가는 말들을, 베토벤의 저 구원의 말들을 되풀이하는 것을 듣고부터 이미 오래 전에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¹⁵⁾라고 자신의 감동을 전하면서 독재자들을 제지할 힘은 자신들에게 없지만,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유대를 공고히 하여 모든 나라에서 짐승같은 광기를 거부하기 위해 “유럽 정신의 헌신적 동맹”¹⁶⁾을 굳게 지켜나가자고 헤세의 외로운 투쟁에 성원을 보내며 양식있는 자들의 連帶를 호소했다. 이 편지는 헤세에게는 千軍萬馬의 援軍이나 다름 없는 큰 정신적 지원이 되어 주었다. 롤랑은 그 후 1919년에는 헤세에게 자신이 제창한 ‘정신의 독립선언’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시 1922년의 편지에서는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非政治的 국제회의에 헤세의 참석을 권유했다. 이런 롤랑의 적극적인 제의에 대해 헤세는 기본적으로는 그 취지에 동의했지만, 대개는 자신은 “자연과 창작에만 전념하는 隱者”¹⁷⁾로 살아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표면에 나서는 행동은 거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롤랑은 그의 절대적 평화주의와 행동적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전쟁에 반대하다가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그의 조국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스위스에서 헤세처럼 포로구호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폭력으로부터 정신의 자유를 지키고 광적인 증오에 맞서서 인간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에서 결속된 이 두 시인의 아름다운 우정관계는 롤랑이 타계할 때까지 20여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나눈 편지들에는 두 사람의 너무나 대조적인 행동양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롤랑은 열정적인 혁명가형으로서 그가 추구하는 이념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쟁하는 행동주의자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反戰的, 평화주의적 입장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과단성과 적극성을 보였다. 이에 반해 헤세는 스스로 롤랑에게 밝히고 있듯이 “활동력이 부족한 조용한 시인”¹⁸⁾으로서 그의 주장을 행동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만 그것을 천명하는, 어떻게 보면 헤세 자신의 말처럼 “비정치적이고 아시아적인 受動적 성향을

14) Kurzgefaßter Lebenslauf. GW. 6. S. 399.

15) Hermann Hesse / Romain Rolland: Briefe. S. 9.

16) Ebd.

17) Ebd. S. 32.

18) Ebd. S. 11.

가진”¹⁹⁾ 靜的 시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사람은 “유럽의 양심”²⁰⁾을 대표하는 시인들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전쟁의 양상이 苛烈해지면서 그의 “전쟁에 대한 항의, 인간의 야만적이고 흡혈귀적인 어리석음에 대한 항의, 전쟁을 설교하며 다니는 ‘정신적인 사람들’에 대한 항의”²¹⁾도 그 논조가 더욱 날카로워 졌다. 그는 국무총리의 연설에 대해 왜 국민, 국민의 군대, 국민의 명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인류에 대한 언급은 없느냐고 항의하면서 인류에 대한 감정을 버리지 말고 “인간성의 맑고 영원한 소리”²²⁾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고, 지식인들을 향해서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모든 고결한 人士들이 무관심이나 자기포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²³⁾ 그리고 또 진정한 평화는 인간 개개인이 그들 속에 內在한 “은밀한 神性”²⁴⁾을 인식할 때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전장에서 죽음」이라는 시에서는 “나를 쓰러트린 그대, 낮은 자여, / 그대 또한 어두운 밤에 덮혀 / 저 부드러운 별빛 아래 누워 있네, / 이제 우리 싸움도, 증오도 / 이 어두움 속에서 빛 바래어 사라져야 하네, / 우리 곧 화해하여 형제가 되어야 하네.”²⁵⁾라고 두 젊은 병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절제된 詩語로 형제애, 인간애의 소중함을 처연하게 노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는 10여편의 논문과 20여편의 서정시를 통해 독일의 위정자, 국민,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연합국 측과 그 국민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항의하고 호소했다.

2

1차 세계대전은 헤세가 예언한대로 독일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독일은 패전의 충격으로 깊은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었다. 국가의 지도적 인사들은 패전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젊은이들은 국가와 그들의 신념의 기반이 붕괴됨으로써 깊은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국가적 혼미의 와중에서 헤세는 「독일의 한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題下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여, 지금은 전쟁의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각자가 그 책임을 자신에게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고난의 시대에도 神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 神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자 마음 속의 그 神을 찾아 거기서 그 神과 대화하면서²⁶⁾

19) Ebd. S. 17.

20) Stefan Zweig: Romain Rolland. Der Mann und das Werk. Frankfurt am Main. S. 209.

21) Briefe. GS. Bd.7. S. 503.

22) An einen Staatsminister. GS. Bd.7. S. 81.

23) Vgl. Soll Frieden werden? GS. Bd.7. S. 100.

24) Krieg und Frieden. GS. Bd.7. S. 120.

25) Tod im Felde. Die Gedichte. S. 267.

그의 신성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명령 이외는 어떤 명령에도, 예컨대 어떤 지도자나 어떤 선각자나 어떤 스승이나 어떤 성직자의 명령에도 따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쟁 중에 독일 국민 개개인이 그들 자신 속에 있는 神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황제나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끄는 대로 邪道로 들어 섰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지적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곧 이어 「짜라투스트라의 再來」라는 논문에서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의 이름을 빌어 패전국의 국민들이 걸어야 할 운명의 길에 대해 교시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우리의 목표는…운명파 하나가 되는 것이다.”²⁷⁾라고 전제하고 이런 시련과 고난의 때가, 이런 절망과 고독의 순간이 운명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헤세에 의하면, 개개의 인간에게는 오랜 진화의 발전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그사람만의 임무와 책임이 부여되는데, 이것이 곧 그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운명을 바꾸려고 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헤세는 이 글에서 각자가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임무와 책임을 자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자고 호소하고 있다. 전쟁 중에 동족들로부터 조국을 배신한 자로 지탄받던 그가 패전 후 동족들을 향해 전쟁의 책임 소재같은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속죄의 길을 걷자고 호소한 것은 독일의 젊은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졌다. 이런 그의 태도에서 작가로서의 그의 깊은 관용과 강한 책임의식을 엿볼 수 있다.

종전 후 헤세가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인 분야는 바로 서평이었다. 그는 1920년부터 1936년까지 거의 20여개의 신문, 잡지를 위해 서평을 썼다. 그가 전후에 장기간 이렇게 많은 서평에 손을 댄 것은 전쟁 중 독일을 지배했던 문화의 쇠국성에 대한 그의 깊은 우려 때문이었다. 아름다운 문학작품들이 그 저자가 적대국의 시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훌륭한 저서들이 당시의 지배적이었던 주장과 대립되는 사상이나 신앙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보이콧 당하고 의도적으로 묵살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이미 「아 벗들이여, 이런 가락이 아니다」라는 논문에서 강하게 항의했고 그밖의 다른 글에서도 그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그것이 초래할 문화적 고립성에 대해 누차 경고해 왔다.

이런 문화적 배타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그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기회받은 저자들이나 묵살되어 온 작품들을 과감하게 그의 서평에서 다루었다. 특히 독일의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그는 유대인이나 캐

26) Vgl. Brief an einen jungen Deutschen. GS. Bd.7. S. 234.

27) Zarathustras Wiederkehr. GS. Bd.7. S. 220.

톨릭 신자들의 저서는 물론 정치적 망명자들의 출판물까지 그의 서평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러나 그의 서평은 다시 독일의 국수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게 대한 중상과 비난은 격화되었다. 그래서 그는 16년동안 계속해온 그의 서평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그는 독자들과의 서신 교환을 통해 그가 주목하고 있는 저서나 무명작가이지만 장래성이 있는 작가들을 계속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했다. 이때 헤세의 서평에서 높은 찬사를 받은 작가들 중에는 프란츠 카프카, 로버트 무질, 안나 제거스, 오스카 뢰르케 등의 신진작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헤세의 탁월한 작품 分析眼과 그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후에 이들이 대부분 독일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그 정확성과 공정성이 입증되었다. 특히 카프카의 경우는 그 당시 거의 무명작가였지만 헤세는 그의 천재적인 산문재능을 발견하고 높이 평가했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의 독서계에 큰 회오리 바람을 불러 일으키며 시작된 이른바 “카프카 르네상스” 시대보다 무려 20여년 전의 일이었다.

종전후 헤세의 여러 차례에 걸친 對國民 호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전혀 자신들의 전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개전의 빛이 보이지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려는 소리가 높아지자 헤세는 다시 분연히 이에 대응했다. 그는 1932년에 쓴 한 편지에서 “전쟁 책임을 모두 얼버무리고 독일의 현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적들’과 베르사이유 조약에다 미루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독일에 정치적 우매성, 허위, 미숙의 기풍을 심어주어 미래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²⁸⁾라고 독일 국민의 비도덕성을 꾸짖으면서 그런 독일인들의 태도에서 그는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간파했다. 이때부터 그는 『황야의 이리』를 비롯하여 여러 작품에서 새로운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주목하면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위험성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집권한 후 그들의 정책에서 개인을 무시하고 인간을 집단화하려는 기도를 발견하고 긴장했다. 집단이나 기구의 특성은 우선 그 구성원들의 개성을 극소화하여 그것을 균일화, 획일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틀힐프 하프너가 지적한 것처럼 “집단 속에서는 개체는 붕괴되고 인간은 상실된다.”²⁹⁾ 헤세는 국가나 사회, 집단보다도 개인을 언제나 우위에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집단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일, 그리고 각 개인의 영혼 속에 진리, 정의, 평화, 사랑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어 그것이 모든 선의의 운동의 뿌리가 되게 하는것이 그에게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었다. 그래서 그는 이 집단화의 최면에서 젊은이들을 구하기 위해 “한 젊은 예술가에게”라는 편지에서

28) Briefe. GS. Bd.7. S. 539-540.

29) Gotthilf Hafner: Hermann Hesse. Werk und Leben. S. 165.

“오늘 날의 세상에는 인간에 대해 당파, 조국, 세상의 道德訓을 선전하는 다른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떤 인격적인 것, 어떤 일회적인 것을 지향하는 이념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래의 어떤 규범적인 인간성 또는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인간성에 순응하라는 요구이고 기계 속의 작은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라는, 수백만의 완전히 똑같은 건축용 石材 중의 하나가 되라는 요구입니다.”³⁰⁾라고 집단화의 생리와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가 인간의 집단화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개성이나 자기 주장이 완전히 말살된 인간들의 집합체가 광산적인 인간이나 어떤 불순한 세력의 도구로 이용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선의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무조건 불신하고 거부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우려는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그는 나치스들에 의해 갑자기 ‘투쟁’, ‘혁명’이라는 구호가 범람하자 거기서 거대한 집단화의 발호를 감지했다. 그래서 그는 나치즘의 혁명적 세계관에 대해서 “나는 세계의 모든 변혁을,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일견 소망스럽고 정당한 것이든 거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³¹⁾고 정면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는 “한 젊은 친척에게”라는 題下의 편지에서 다시 “프로그램이나 규격화된 ‘주의’는 인간을 한없이 어리석게 만든다.”³²⁾라고 전제하며, 인류사회는 수세기 동안 수천의 ‘주의’, 당파, 프로그램, 혁명이 있었고, 그것들은 세계의 변화와 전진에 기여한 실적은 있지만 그런 것 중 그 어느 것도 그 시대를 뛰어넘어 지속된 적은 없다는 사실과, 그러나 소수의 참다운 예술가, 현자,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말이나 업적은 언제나 초시대적이고 영속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철저한 국수주의적인 한 교사로부터 ‘투쟁’을 사주받고 있는 한 소녀에게 쓴 답장에서는, 서양인들은 예로부터 ‘투쟁’이라는 단어를 몹시 좋아하며 그것을 찬미해 왔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이 말처럼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는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말 속에는 독일의 젊은이들과 나치즘을 하나로 묶으려는 저의가 숨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이런 ‘투쟁’ 중 가장 나쁜 것이 “국가적으로 조직된 형식”³³⁾이라고 단정하면서 나치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헤세는 특히 젊은이들이 자기 주장이나 신념을 버리고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 자신을 내맡기려는 자기포기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젊은이들의 이런 경향은 그들이 사고를 게을리하고 고뇌보다는 安心을 바라기 때문이며 그들의 이런 사고의 퇴행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물질지상주의에 의한 脫精神化 현상과 깊이 뿌리가 닿아 있

30) Briefe. GS. Bd.7. S. 680.

31) Ebd. S. 550-551.

32) Ebd. S. 601.

33) Ebd. S. 547.

다고 믿었다. 폭력에 의한 세계 변혁이 거론되고 그것이 열광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에겐 이미 정신의 품위가 손상되어 정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질서의 향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의 작품 속에 정신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거기에 봉사하여 정신의 품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왔다. 사회발전이나 인류문화의 창달은 힘이나 물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정신에 대한 외경과 봉사로써, 그리고 개개인의 창의력과 고뇌의 결집으로써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 독일 국내의 여론은 극도로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헤세의 사촌 빌헬름 군데르트가 모국의 이런 분위기를 의식하고 헤세에게, 조국이 '위대한 시대'를 맞이 했을 때는 독일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자기 국민 편에 서야한다는 내용의 충고 서한을 보냈다. 헤세는 이에 대해 "큰소리로 외칠 때 함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유태인과 정신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와 인도주의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綱領에 따라서 함께 증오하는 것으로써는 결코 자기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에 대한 '위대한 시대'란 사실 언제나 증오와 전쟁의 준비가 완료된 시대이다."³⁴⁾라고 그의 충고를 거절하면서 자기 국민 편에 서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정신, 사랑, 인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表白한 詩「자각 *Besinnung*」을 꼭 한 번 읽어 보라고 권했다. 1933년에 발표한 이 시에서 헤세는, 우리 인간은 영원하고 신성한 정신의 似姿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실한 동경은 바로 영원한 정신의 빛을 받아 빛나는 것이며, 인간은 비록 암흑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의 동경에 의해 至高한 상태, 즉 "믿고 희망하는 사랑 *gläubige, hoffende Liebe*"³⁵⁾의 경지에 도달하여 "참을성 있는 사랑 *geduldige Liebe*"³⁶⁾으로 모든 불신, 분열, 증오를 뛰어 넘어 신성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노래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그에겐 언제나 모든 대립과 갈등을 용해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었고 "고통 속에서도 미소할 수 있는 모든 능력"³⁷⁾을 의미했다. 그는 이런 고난의 시대에 쇠퇴해 가는 인간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사랑의 마술 *die Magie der Liebe*"³⁸⁾뿐이며, 이런 사랑의 전도사가 시인이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사랑의 설교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그의 조국을 향해 독일의 국수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상주의"³⁹⁾라고 공격의 포

34) Ebd. S. 564-565. "Durch Mitschreien bei dem großen Geschrei und Mithassen bei all den Programmen gegen die Juden und den Geist, gegen Christentum und Menschentum nutzt man ja seinem Volk wenig, für das 《Volk》 sind die 《großen Zeiten》 ja immer die des Hassens und der Kriegsbereitschaft."

35) *Besinnung*, *Die Gedichte*. S. 407.

36) Ebd.

37) *Betrachtungen*. GS. Bd.7. S. 136.

38) *Briefe*. GS. Bd.7. S. 543.

문을 열었다. 그리고 독일 국민들을 명령에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하사관적인 재능”⁴⁰⁾을 타고 난 민족이라고 비난했고 독일 국민성을 “도덕적 정화나 양심의 혁신”⁴¹⁾에 둔감한 “官製 건본”⁴²⁾이라고 혹평했다. 또 지식인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망상을 함께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해야 하며 성실과 진실을 대변하여 조용히 정치를 보이콧트해야 합니다.”⁴³⁾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호소도 지축을 흔든 전쟁의 포성 속에 묻혀 버렸고, 그는 또다시 자신을 향해 빗발치듯 쏟아지는 ‘민족 반역자’라는 매도에 단신창이가 되었다. 이 무렵에 발표한 그의 시에서는 깊은 절망과 비애에 젖어 있는 그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그는 「비애 Traurigkeit」에서 “하늘엔 별도 없네, / 내 마음엔 사랑도 없네, / 잿빛 먼 하늘은 침묵하고, / 세상은 늙고 텅 비어 있네. / ...이 사악한 시대에 / 누가 그의 마음 지켜줄까? / 비애의 나무에선 하염없이 꽃이 떨어지네.”⁴⁴⁾라고 노래했다. 그리고 또 「만년의 시련 Späte Prüfung」에서는 “세계와 내 삶은 / 풀 한 포기 없는 산이 되고 바위 부스러기만 덩구는 빈터가 되었네. / 버티며 저항할 / 이런 강단이 없으면, / 영혼의 밑바닥에 이런 강단이 없으면, / 고뇌는 빛으로 향하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 난 울며 굴복하리라.”⁴⁵⁾라고 침통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런 비탄의 노래만 부르고 있기에는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고 절박했다. 그에게는 독일에 남아 야만적인 집단과 고투하고 있는 동료들을 정신적으로나마 지원해 주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고 파국에 직면한 20세기와 정반대의, 정신과 질서가 지배하는 새로운 이상적인 世界像을 창출하여 그것을 두 차례의 큰 전쟁으로 상처입은 세계인들 앞에 제시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는 전쟁으로 얼룩진 타락한 20세기를 정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먼 미래 속에 설정된 한 정신적 유토피아에서 찾았다. 이 작품이 바로 1943년에 스위스에서 처음 발표한 『유리알 유희』였다. 그는 한편지에서 이 작품의 집필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공기는 다시 有毒해 졌고 산다는 것이 다시 의문시 되었습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시인의 육체적, 정신적 생존에 대한 이런 위협과 위협 속에서 나는 모든 예술가들의 구제 수단으로써 창작에 손을 댔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일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속에서 세계의 온갖 중독에 맞서서 호흡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 즉 피난처와 城을 건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만적 세력에 대한 정신의 저항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가능하다면 저쪽 독일에 있는 내 동료들의 저항과 인내를 강화해 주는 일입니다.”⁴⁶⁾

39) Ebd. S. 540.

40) Briefe. GS. Bd.7. S. 543.

41) Ebd. S. 536.

42) Ebd. S. 734.

43) Ebd. S. 537.

44) Traurigkeit, Die Gedichte. S. 471.

45) Späte Prüfung, Die Gedichte. S. 469.

이 작품이 1946년에 독일에서 출판되었을 때 독일의 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 작품 속에 형상화된 세계가 그들의 세계와는 너무나 판이했기 때문이었다. 한스 카룻사도 그의 회고록 『이질적인 세계 *Ungleiche Welten*』에서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의 당혹감과 충격을 전하면서 헤세의 “파괴될 수 없는 인간성에 대한 신앙”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어쨌든 이 작품은 “엄청나게 강하고 지속적인 영향”⁴⁶⁾을 미쳤고 이 작품이 독일에서 출판되던 해에 헤세는 전후 최초의 괴테상과 노벨 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3

헤세는 『유리알 유희』에서 20세기를 “전쟁의 세기 *das kriegerische Jahrhundert*”⁴⁹⁾라고 부르고 괴테상 수상 소감을 적은 「감사와 도덕적 성찰」에서는 20세기가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른 것은 바로 20세기가 앓고 있는 두 가지 큰 정신병, 즉 “국수주의 과대망상 *Größenwahn des Nationalismus*”⁵⁰⁾과 “기술 과대망상 *Größenwahn der Technik*”⁵¹⁾ 때문이었다고 단정했다. 그의 진단에 의하면 20세기의 총체적 위기의 病巢는 바로 이 두 가지 “세계병”⁵²⁾에 있고 전쟁은 이 질병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결과로 폭발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인류의 파멸을 부르는 이 무서운 “세계병”에 대항하는 것이 그이겐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그것이 곧 이 지상에서 ‘인간’을 지키고 ‘정신’의 의미와 가치를 변호하는 길이라고 믿었다.⁵³⁾ 헤세가 끊임없이 인간의 ‘집단화’에 대해 항의하고 경고한 것은 그것이 곧 전쟁의 요인이 된 국수주의의 발단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

46) Volker Michels (Hrsg.): Materialien zu Hermann Hesses >Das Glasperlenspiel<. 1. Band. S. 295-296. “Die Luft war wieder giftig, das Lenben war wieder in Frage gestellt. ... Inmitten dieser Drohungen und Gefahren für die physische und geistige Existenz eines Dichters deutscher Sprache griff ich zum Rettungsmittel aller Künstler zur Produktion, Es galt für mich zweierlei: einen geistigen Raum aufzubauen, in dem ich atmen und leben könnte aller Vergiftung der Welt zum Trotz, eine Zuflucht und Burg, und zweitens den Widerstand des Geistes gegen die barbarischen Mächte zum Ausdruck zu bringen und womöglich meine Freunde druben in Deutschland im Widerstand und Ausharren zu stärken.”

47) Hans Carossa: *Ungleiche Welten*. Insel-Verlag. 1954. S. 166.

48)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in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S. 138.

49) *Das Glasperlenspiel*. S. 389.

50) Danksagung und moralisierende Betrachtung. GS. Bd.7. S. 457.

51) Ebd.

52) Ebd.

53) Vgl. ebd. S. 457.

다. 그러나 헤세가 이런 '집단화', 국수주의에 못지 않게 경계했던 것이 바로 20세기에 널리 만연된 "기술 과대망상"과 그로 인한 물질 지상주의적 사고였다. 헤세는 「국가」라는 논문에서 자기 조국이 세계의 열강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회고하면서, 유럽에서 가난하고 약했던 독일이 산업혁명 이후 주변국들의 신속한 산업화 정책에 의한 비약적인 국력 신장에 자극받아 뒤늦게 기술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갑자기 "기계정신 *der Geist der Maschine*"⁵⁴⁾이 이 나라를 지배하여 "수많은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계, 새 철도, 새 상품을 만들어 냈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해머로 두드리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끊임없이 새 무기, 새 대포도 만들어 냈다."⁵⁵⁾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전 세계에 "사상, 음악, 시라는 끊임없는 숭고한 정신의 강물"⁵⁶⁾을 흘려보내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지면서 이제는 이웃 나라들에게 경계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새로운 과학지식을 응용한 기술, 도구의 개량으로 비약적으로 증대된 생산력, 거대한 자본의 축적, 상품생산의 대량화에 따르는 대량의 자원 획득과 광대한 판로 개척의 필요성, 그리고 군비경쟁의 가속화와 강력한 기계력에 의해 점점 정예화되는 병력—결국 기술문명의 발전에 크게 힘입은 현대산업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당도할 곳은 식민지 획득경쟁과 제국주의적 침략전쟁 뿐이었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가공할 살상과 파괴, 그리고 참담한 폐허뿐이었다.

헤세는 이렇게 기술과 진보에 대한 인간들의 망상적 신념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헤세는 20세기 속에서 삶을 누린 현대 작가였지만 체질적으로 문명의利器를 기피한 보기드문 시인이었다. 그것은 그의 작가활동을 위한 많은 편의성이 보장된 대도시를 떠나 문명세계와 동떨어진 스위스 남단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의 후반생을 보낸 것만 보아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그가 대도시를 기피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대도시에서의 삶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혐오한 것은 대도시가 지닌 비정한 非人間的 속성이었다. 그는 『뉘른베르크 기행』에서 그의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인 뉘른베르크市를 둘러본 후 "모든 것은 아름다웠지만 크고 애정이 없는 살풍경한 상업도시의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모터의 소음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길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다른 시대의 템포 하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당장이라도 붕괴될 각오가 되어있는 듯이 보였다. 왜냐하면 아무런 목적도 혼도 없기 때문이었다."⁵⁷⁾라고 도시에 대한 인상을 적고 있다. 급속하게 상업화, 대형화되어 가는 도시 속의 건축물들이 그에게는 붕괴의 위협에 떨고 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그속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인간적인 도시, 혼이 담긴 건축물의 건설

54) *Das Reich*. GS. Bd.7. S. 128.

55) *Ebd.*

56) *Ebd.* S. 128.

57) *Die Nürnberger Reise*. GW.7. S. 172-173.

을 도회시하는 현대문명의 기능주의적, 沒個性的인 사고방식에 대해 그는 항의하고 있다. 대도시의 추악함과 황량함, 그 속에서 내뿜는 기계들의 소음과 유독 가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시들어 가는 인간들의 초라한 모습이 이 작품 곳곳에 단편적으로, 풍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런 묘사 속에는 대도시를 통해 현대의 기술문명 전반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대결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의 이런 대결의식이 가장 극명하게, 가장 섬뜩하게 표출된 것이 바로 『황야의 이리』 속에 묘사된 “대대적인 자동차 사냥 Hochjagd auf Automobile”⁵⁸⁾이다. 그는 기계와 인간의 싸움을 ‘자동차 사냥’에 비유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길에는 자동차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일부는 장갑차였다. 자동차들은 행인들을 몰아서 깔아 뭉개어 집들의 벽에 밀어 부쳤다.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인간과 기계와의 전쟁으로 오랫동안 준비되고 예기되고 두려워해 오다가 이제 드디어 폭발한 것임을. 도처에는 死者와 찢겨진 사람들이 널려 있고, 도처에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반쯤 타버린 자동차들이 덩굴어 있었다. 이런 참담한 대혼란의 광경 위에서는 비행기가 선회하고 있었고 집집마다의 지붕과 창에 서는 소총과 기관총이 그것을 저격하고 있었다.”⁵⁹⁾

이것은 어쩌면 인간들의 무한경쟁의 기술개발이 언젠가 자초할런지도 모를 기계문명의 混沌期이다. 영국의 평론가 콜린 윌슨은 그의 저서 『아웃사이드어』에서 헤세를 “낭만주의적 아웃사이드어”⁶⁰⁾의 전형이라고 부르며 헤세와 같은 아웃사이드어는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존재들이라고 규정했다. 윌슨은 “아웃사이드어는 벽구멍을 통해 인생을 들여다 보는 사람이다”⁶¹⁾라고 말하면서 앙리 바르뷔스의 『지옥 L'Enfer』의 주인공을 예로 들고 있다. 호텔에서 벽구멍을 통해 옆방을 들여다 보는 이 주인공은 “너무나 깊이, 너무나 많이”⁶²⁾ 방안의 혼돈을 직시한다. 그러나 방 안에 있는 인사이드어들은 그 혼돈의 실상도, 위험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결국 문명사회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들의 사회가 혼돈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기존의 가치나 질서를 끊임없이 거부하며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열망에 차 있는 아웃사이드어들은 그 사회의 모순과

58) Der Steppenwolf. GW.7. S. 372.

59) Ebd. S. 372. “Auf den Straßen jagten Automobile, zum Teil gepanzerte, und machten Jagd auf die Fußgänger, überführen sie zu Brei, drückten sie an den Mauern der Häuser zuschanden. Ich begriff sofort: es war der Kampf zwischen Menschen und Maschinen, lang vorbereitet, lang erwartet, lang gefürchtet, nun endlich zum Ausbruch gekommen. Überall lagen Tote und Zerfetzte herum, überall auch zerschmissene, verbogene, halbverbrannte Automobile, über dem wüsten Durcheinander kreisten Flugzeuge, und auch auf sie wurde von vielen Dächern und Fenstern aus mit Büchsen und mit Maschinengewehren geschossen.”

60) Colin Wilson: Der Outsider. S. 63.

61) Ebd. S. 11.

62) Ebd.

부패상을, 다시 말하면 혼돈을 깊이 투시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기술의 발전만이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더욱 안락하게 보장해 주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주리라고 믿고 있지만 아웃사이더인 헤세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서 이런 엄청난 혼란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20년대에 이미 환경공해의 심각성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황야의 이리』에서 훼손된 환경과 인구증가의 위험성에 대해 인간들에게 “공장에 불을 지르고 파손된 대지를 조금 들어내고 사람을 줄여서 다시 풀이 자라게 하고, 다시 먼지 투성이의 시멘트의 세계에서 숲과 초원, 들, 개울, 늪같은 것이 생기게 하라.”⁶³⁾고 외치고 있다. 이런 그의 외침은 1920년대의 인간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허황한 소리로 들렸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 대기오염과 환경파괴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대를 멀리 내다보고 豫斷하는 그의 작가적 형안에서 나온 警世의 외침이 차라리 감동적으로 들린다. “기계는 인간의 최고, 최후의 발명품이다.”⁶⁴⁾라고 찬사를 보내며 “그 기계의 도움으로 인간은 神이 될 것이다.”⁶⁵⁾라고 자만하던 인간이 자동차의 공격에 의해 참살되는 아이러니는 결국 인간이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만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모순이다.

헤세가 20세기의 위기를 과학기술 분야에서만 본 것은 아니다. 그는 문화의 영역에서도 현대의 혼돈을 직시했다. 헤세는 『유리알유희』의 序章에서 20세기를 “잡문시대 *feuilletonistische Epoche*”⁶⁶⁾라고 특징짓고 있다. 두 번의 큰 전쟁, 정치와 도덕의 부패, 허무주의적 사고와 瀆神의 경향 그리고 사이버 문화의 범람—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헤세에게 문화의 몰락 징후로 간주되었다. 그는 이런 혼돈의 원인이 바로 정신의 품위 손상에 있다고 보았다. 그 때문에 정신은 모든 질서를 주도해 나갈 권위와 힘을 상실했다고 그는 믿었다. 중세이후 수많은 천재들의 비극적인 투쟁과 희생의 결과로 이성은 모든 권위의 힘으로 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성의 자유를 정당화시켜 줄 새로운 권위, 다시 말하면 “정신 그 자체에 의해 형성되어 존경받는 참다운 법칙”⁶⁸⁾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미증유의 자유”⁶⁸⁾속에 방임되고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 즉 정신이 확고한 자기규범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술문명이 침투하자 정신은 쉽게 기술 지상주의적 사고에 농락당해 완전히 그 품위가 땅에

63) Der Steppenwolf. GW.7. S. 372. “...endlich die Fabriken anzuzünden und die geschändete Erde ein wenig auszuräumen und zu entvölkern, damit wieder Gras wachsen, wieder aus der verstaubten Zementwelt etwas wie Wald, Wiese, Heide, Bach und Moor werden könne.”

64) Ebd. S. 373.

65) Ebd.

66) Das Glasperlenspiel. S. 20.

67) Ebd.

68) Ebd.

떨어졌다. 그래서 20세기의 인간들은 “...이제 교회로 부터도 아무런 위안을 얻지 못하고 정신으로 부터도 아무런 조언을 얻지 못한채 거의 무방비 상태로 죽음, 고통, 기아에 직면하게 되었다.”⁶⁹⁾ 그리고 또 “그들은 눈을 감고 미해결의 많은 과제들과 불안감으로부터 도피하여 가급적이면 환영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⁷⁰⁾ 헤세는 이런 그들의 파멸의 불안감과 현실도피적 욕구에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 바로 신문이었다고 단정했다. 신문의 철저한 상업주의는 이들을 “천진난만한 환영의 세계”⁷¹⁾로 인도하기 위해 저마다 “문예오락欄 *Feuilleton*”을 신설하여 역사, 심리, 문학, 예술, 과학에 대한 단편적 지식이나 일화, 명사들이나 배우들의 사생활에 얽힌 비화, 기발한 게임이나 유희등에 대한 정보를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독자들에게 공급했다. 헤세는 언론의 이런 무책임하고 자극적인 상업주의가 결과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자율적 사고능력을 한없이 수탈, 파괴했고 진실의 왜곡과 사실의 과장을 위해 동원된 언어는 아름다움과 진실성을 잃게 되었으며 정신적인 문학작품은 점점 딜레탕트적인 사이버 작품에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결국 20세기의 문화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대중적 상업주의에 오염되었다. 그래서 헤세는 이런 잡문문화에 참여하는 시인, 저술가, 학자들을 문화타락의 장본인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헤세는 이런 모든 문화적 혼돈의 원인인 정신에 대해서 그 품위를 회복시켜 주고 잡문문화의 도구로 전락한 언어에 대해서는 그 아름다움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카스타린 *Kastalien*’이라는 정신과 학예를 숭상하는 이상적인 교육주를 건설하고 정신과 학예를 연마하는 정신적 유희를 창안하여 그것을 그의 소설 『유리알 유희』 속에 구상화했다. 상업주의로부터 순수예술을 지키려는 그의 강한 의지는 그의 소설의 영화화 제의에 대해서도 완강한 거부로 표출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의 소설들은 미국에서 폭발적인 헤세 붐을 조성하여 이른바 ‘헤세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그러자 이 헤세붐을 이끌었던 그의 『황야의 이리』와 『싯다르타』에 대한 영화화 제의가 잇달아 들어 왔다. 그러나 헤세는 이런 제의들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한 편지에서 “기성의 문학작품을 빼앗아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영화는 표절입니다.”⁷²⁾라고 전제하고 “순수하게 문학의 수단, 즉 언어에 의해서만 기능을 발휘하는 문학작품은 ‘재료’로 사용되거나, 다른 수단을 가진 다른 예술에 도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 격하이고 야만입니다.”⁷³⁾라고 그의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 편지에는 문학과 예술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어떤 위협을 받아도 그것이 그에게는 변함없이 소중한고

69) Ebd. S. 23.

70) Ebd.

71) Ebd.

72) Briefe. GS. Bd.7. S. 736.

73) Ebd.